

## B화학(주) 화재



# 전선에서 불꽃놀이 하듯 폭발적으로 화재 발생

— 소화전으로 진화작업 도중에 전원 차단 —

재산피해 1억 5천만원

## 1. 일반사항

- 건물명 : B화학(주) 본공장
- 소재지 : 부산직할시 금정구 소재
- 화재일시 : 1990년 6월 25일(월요일) 07시 01분
- 발화위치 : 중1층
- 화재원인 : 전기누전(추정)

## 2. 공정개요

부산시 금정구 금지동 공장 지대내에 '82년도에 건축된 본공장은 신발 생산업체로 주문자 상표에 의한 수출에 주력하여 왔으며 발화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슬레이트 구조로서 증축하여 사용하여 왔다.

공정은 1층의 기초 공정, 2층의 제화공정 및 3층의 재봉공정으로 대별되며 완제품은 2층에서 컨베이어 라인을 통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위치하여 있는 제2공장(창고)으로 이동되어 출하된다.

## 3. 화재상황

발생당시 공장내에는 야간 경비조 2명, 보일러기사 1명 및 여자 작업원 2명이 있었으며 여자 작업원이 작업준비를 위하여 07:00시경 전원을 투입한 잠시후 정전이 되었으며 그후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보일러 기사의 진술에 의하면 출근하여 보일러를 가동시킨 후 조명등이 정전되어 확인차 작업장에 들어와 보니 뽀뽀 작업부 상부의 전선에서 마치 불꽃놀이 하듯 폭발적으로 불꽃이 발생하면서 순식간에 타들어 갔다하며 정확한 화재 장소 및 시간은 알 수 없었다고 한다.

화재를 발견한 보일러 기사는 부근의 소화기로 진화 작업을 실시하였으나 소화가 안되어 옥외로 피신하였으며, 여종업원 2명은 화재발생 상황을 경비실에 알리기 위해 뛰어나왔고 경비원은 바로 소방서에 연락을 취하였다.

소방차 출동은 연락을 취한 약5분후에 이루어졌으며 정오쯤에야 겨우 진화되었고 그후 2~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 있는 건물 피해 모습)

3일간 계속 불씨가 잔존하였으므로 소방차가 대기하여 수시 진화 작업이 행하여졌다.

#### 4. 피해상황

출근 시간전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화재 인지후 1차 진화작업을 마치고 나서 공장내 인원이 전부 옥외로 피난하였으므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내부는 전소에 가까우며 1층, 2층의 약 40%와 3층 트러스 건물부분이 붕괴되었다. 소방서 추산 피해액은 동산 1억5백5십만원, 부동산 4천8백5십만원, 계 1억5천4백만원이다.

#### 5. 문제점 및 대책

##### 가. 문제점

- 출근 시간전으로 화재발생 확인후 소화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의 절대수가 부족하였다.
- 전기 화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전원 차단이 행하여 지지 못하고 소화기에 의한 진화작업만 행하여 졌으며 그후 소화전은 진화작업 도중 전원이 차단되었다.
- 1차 출동한 소방차의 수원이 진화 작업 도중 고갈되었으며 출근 시간으로 인한 교통 혼잡으로 소방차 출동 및 재급수가 극히 어려웠다.
- 여러 직원들이 출근하였을 때에는 이미 화재가 진행되어 유독 가스및 짙은 연기가 다량 발생되어 접근이 곤란하여 진화작업이 극히 곤란하였으며 소화작업도 건물 도피 방지 및 주변으로 연소 방지에 주로 집중되었다.
- 각층을 연결하는 내부 물품운반 shute, 공장내 다량의 가연물질 및 인화물질로 연소 확대가 손쉽게 이루어졌으며 붕괴가 없었다면 진화 시간이 보다 지연되었을 것이다. 또한 옥탑에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진화에 도움이 되었으리라 판단된다.

##### 나. 대 책

- 전기로 인한 화재 발생위험에 대비하여 안전 장치의 점검을 강화하고 전기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의 교육이 필요하다.
- 건물내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하여 방화구획의 보강이 필요하며, 특히 준비실,나임실 등을 포함한 위험 장소는 별도의 방화구획을 설치한다.
- 용도상 화재 발생시는 다량의 연기 및 유독가스의 발생으로 접근이 곤란하므로 초기 진화 대책을 보다 면밀히 검토 수립한다.
- 소방차가 사용 가능한 수원을 확보해 둔다.



〈외부에서 바라본 화재건물〉